



미 증시, FOMC 안도감, 실적 기대감 등으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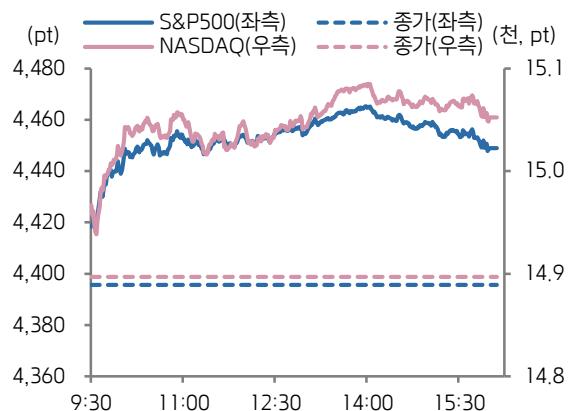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9월 23일 (목)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헝다그룹 리스크 지속에도 불구하고, FOMC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하며 1%대로 상승. 전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연내 테이퍼링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과 점도표가 더 매파적으로 수정되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연일 큰 폭 상승. 장 초반 0.5% 상승 출발 이후 장중 1.6%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장 막판 차익실현성 매물과 남아있는 헝다그룹 우려감 등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

대부분 업종들은 상승했지만, 유太高(-0.5%)와 부동산(-0.5%) 업종은 하락. 상승폭이 가장 커진 업종은 에너지(+3.4%)와 금융(+2.5%). 에너지와 금융 섹터의 국제 유가 강세와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이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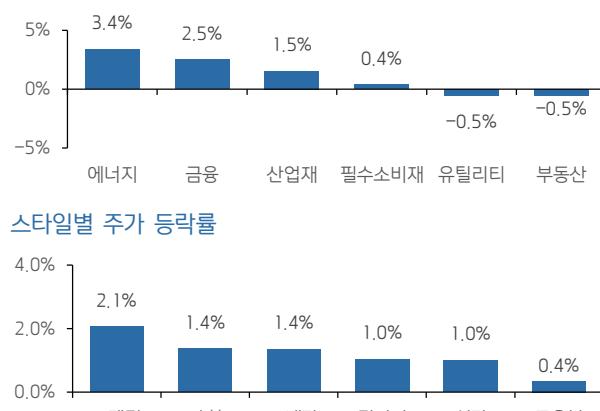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대부분 전월대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장막판 상승폭 축소 유발. 미국 제조업 PMI(61.1→60.5pt)과 서비스업 PMI(55.1→54.4pt), EU의 제조업 PMI(61.4→58.7pt)과 서비스업 PMI(59.0→56.3pt) 모두 전월대비 둔화. 추가적으로 미국 9월 캔자스시티 제조업지수는 22pt에서 10pt로, 8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는 0.75pt에서 0.29pt로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특징주

JP 모건(+3.4%), 뱅크오브아메리카(+3.9%), 씨티그룹(3.4%), 찰스스왑(+5.5%) 등: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7bp 급등에 힘입어 금융 섹터 2.5% 상승.

세일즈포스(+7.2%): 연간 매출 가이던스 2022년(262.5~263.5 억 달러)과 2023년(316.5~318.0 억 달러)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

다든 레스토랑(+6.1%):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 EPS 1.76 달러로 예상치 1.64 달러를 상회. CEO는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테이크 수요가 견조했다는 점을 강조. 이번 분기 올리브 가든의 매출 중 27%가 테이크아웃이었다고 함.

블랙베리(+10.9%):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장중 13% 이상 상승. EPS 가 시장 예상치(-0.07 달러)보다 높은 -0.06 달러 기록. 문지 매출은 1.75 억 달러로 예상치 1.64 달러를 상회.

KB 홈(+0.5%): 실적 중 매출, 이익 그리고 가이던스도 예상을 하회했지만, 웨드부시 증권에서 가이던스 중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은 높이는 내용도 있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에 도움이 됨. 오전 2%대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 장기물 금리의 급등세로 상승폭 축소.

노르웨지안 크루즈(+4.9%), 카니발(+4.6%): 카니발은 10 월 말까지 50% 수용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기존 가이던스는 2022년 초까지 65% 수용력)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4,448.98	+1.21%	USD/KRW	1,175.78	-0.67%
NASDAQ	15,052.24	+1.04%	달러 지수	93.11	-0.38%
다우	34,764.82	+1.48%	EUR/USD	1.17	+0%
VIX	18.63	-10.73%	USD/CNH	6.46	+0%
러셀 2000	2,259.04	+1.82%	USD/JPY	110.29	-0.04%
필라. 반도체	3,457.45	+1.3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234.40	+1.67%	국고채 3년	1.565	+3.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102	+3bp
Eurostoxx50	4,194.92	+1.08%	미국 국채 2년	0.261	+2.5bp
MSCI 전세계 지수	724.24	+0.73%	미국 국채 10년	1.430	+13bp
MSCI DM 지수	3,074.35	+0.8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62.79	+0.11%	WTI	73.26	+1.43%
MSCI 한국 ETF	83.96	+2.4%	금	1741	-2.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5.2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전해지는 중국 헉다그룹 파산 관련 뉴스플로우
2.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에 따른 국내 수출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 여부
3.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강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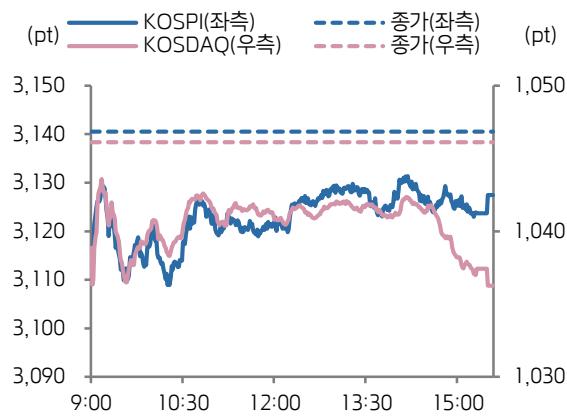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1.4%대를 돌파한 배경 중 하나는 채권시장에서 9월 FOMC를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성격이 존재. 그럼에도 9월 FOMC 이후 2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이미 9월 들어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 실제 9월 FOMC 종료 이후 시장참여자들은 재료 소멸 or 악재의 기정사실화 성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판단. 물론 테이퍼링 공식화가 예상되는 11월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 및 규모(매월 혹은 매 FOMC 마다 국채 100 억달러, MBS 50 억달러 매입 축소 예상)를 놓고 시장참여자들은 한차례 고비를 더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 다만, 11월 FOMC 이전에 발표되는 고용,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연준도 정책 결정 이전에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11월 FOMC를 이른 시점부터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9월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종료된 만큼, 향후 주식시장에 매크로 이슈보다 실적 시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바이든 행정부가 9월 30일 셧다운에 대비하라고 발표했듯이, 미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잠재적인 시장 불안 요인.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채한도 협상 및 협상 실패로 인한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단발성 재료이자 제한적인 영향만 가했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 주중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했던 헉다그룹발 시스템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고 있는 상황. 중국 정부 측에서도 각 지방기관 및 국영기업에게 해당 그룹의 파산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알려진 만큼 헉다그룹 사태는 글로벌로 전이되는 대규모 충격이 아닌 로컬 이슈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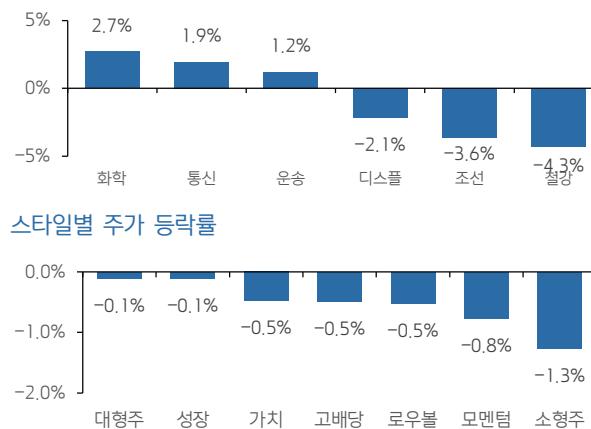
이상의 요인을 고려 시 금일 국내 증시는 9월 FOMC 이후 안도감, 실적 시즌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3일 발표된 한국의 9월 수출 결과 확인할 수 있듯이(~20일, +22.9%YoY), 반도체(+7.7%), 석유제품(+95.0%), 승용차(+9.4%) 등 주력 수출품목 호조세 및 관련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 1,186 원대에 진입하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재차 빠르게 내려와 1,170 원대로 안착하는 등 환율을 포함한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이라는 점이 금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